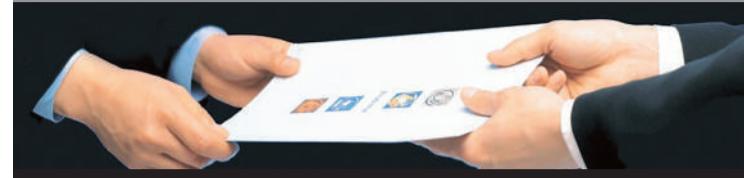


4》 리포트, 한번 가면 함흥차사?



5》 열악한 체육 인프라



2015학년도 2학기 최종등록 안내(졸업유예자)

기간 : 2015.9.16.(수)~2015.9.21.(월)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납부방법 :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2)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  
3) 은행 직접 방문 납부

## 취업률 50.9%, '절반 취업' 고착화되나

진학률은 10% 밀돌아 … 취진처,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 적다”

### 대학알리미 8월공시 분석

방누리 기자 nurib423@knu.ac.kr

우리학교 양 캠퍼스 취업대상자 4,590명 중 2,337명이 취업해 취업률 50.9%를, 졸업자 5,575명 중 552명이 진학해 진학률 9.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5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2015년 졸업생의 진학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취업률인 50.6%보다 0.3%pt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15 서울 주요 경쟁대학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성균관대(68.3%)와 격차가 17.4%pt나 벌어져 있어 소폭 오른 취업률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과가 되거나 졸업자 수가 적은 국제·경영대학과 의과대학, 동서의 과학과 등을 제외한 21개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 통틀어 한의과대학이 8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음악대학은 9.7%로 가장 낮았다. 국제 캠퍼스(국제캠)는 전자정보대학이 68.0%로 가장 높았고, 생명과학대학이 31.3%로 가장 낮았다.

성비로 분석한 우리학교 취업률은 남학생 55.1%, 여학생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단과대학 중 법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남학생 취업률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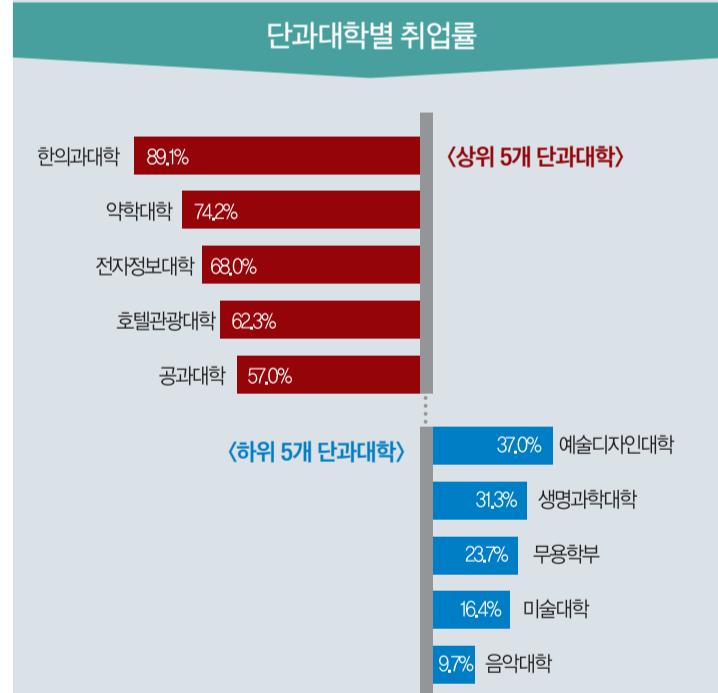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으로 줄곧 언급되는 문제들은 예체능계열과 여학생의 졸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의 원인을 예체능계열과 여학생 졸업자 비율로 돌리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지

난해까지 우리 신문에서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프리랜서나 1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저조는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현상이라는 점과 여학생이 100%인 이대·숙대와 우리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 캠퍼스 취진처 모두 위와 같은 원인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한상백 팀장은 “타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는 교수, 학생,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타 대학의 취업 지원부분이나 관련행사를 듣다보면 ‘취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캠 취진처 정현향 계장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시스템도 쉽게 바뀔 수 있다”며 “요구가 많으면 점점 더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학교의 진학률 역시 지난해 10.8%에서 0.9%pt 떨어진 9.9%다. 이는 서울 주요 경쟁 대학들이 2~30%를 웃도는데 반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이 31.3%로 가장 높고, 응용과학대학(28.1%)과 무용대학(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간호과학대학으로 0.6%였으며, 호텔관광대학(1.8%), 정경대학(1.9%), 경영대학(1.9%) 등이 2% 미만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진학률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진학률이 낮았다. 진학률만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학률이 대학 교육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인류문명 핵심개념 <사회계약 Social Contract>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②

이기라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리는 왜 권력에 복종하는가? 우리는 왜 특정한 정치적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사회계약은 한 사회에서

회계약론자로는 17세기 영국의 토마스 휴스와 존 로크,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를 꼽는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다.

#### 동의에서 나온 권리

#### 개인은 왜 권력에 복종하나?

사회계약론자들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정당한 정치적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로부터 인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상태는 모든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들을 강제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사회적 규범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인으로 상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즉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도 없다면, 권력과 지배구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자유로운 개인들로 하여금 정치권력을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Pinterest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칼럼

####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 ‘불평’ 가 ▶7면

